

북한의 외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실태

김 동 수

(전 북한외교관)

북한의 외교관 양성을 위한 기본 전초기지는 평양외국어학원과 평양외국어대학이다. 평양외국어학원은 북한의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의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1958년 9월 개교하였는바, 당시 평양외국어학원 공식명칭은 ‘평양외국어혁명유자녀학원’이었다. 입학 자격은 혁명 유자녀, ‘영웅’ 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에게 한정되었다. 1968년 9월 ‘평양외국어혁명유자녀학원’ 창설 10주년을 맞으며 김일성이 이 학원을 현지도 하였고, 그 이후부터 ‘평양외국어학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혁명 유자녀, ‘영웅’ 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초등학교졸업생들로 입학자격자들을 모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 식의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평양외국어학원 학생들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100% 전공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몰입 식 교육을 받는다. 이들 중 외국어에 특히 소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시험을 통해 선발한 뒤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엘리트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유명하다. 시험과목은 공산주의도덕, 국어, 수학, 자연, 체육 등이다.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8개 외국어 강좌가 만들어져 있다.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교생 수는 1000여 명이다.

이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프랑스어), 강석주 전 외무성 1부상(영어), 김계관 외무성 고문(프랑스어)은 ‘평양외국어혁명유자녀학원’ 1기 졸업생들이며 이용호 외무상(영어), 최선희 외무성 1부상(영어), 김명국 외무성 순회대사(영어)도 평양외국어대학 졸업생들이다.

1968년 ‘평양외국어혁명유자녀학원’에서 ‘평양외국어학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이후 신입생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게 되면서 온갖 비리입학 및 뇌물, 직권남용 등이 성행하게 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남한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외분야에서도 북한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으므로 그 어느 때 보다는 유능한 외교관들이 더 많이 필요 되던 시기였다. 다시 말하여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외부분에서 일대 혁신과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게다가 김정일이 “외교관들이 외국어를 모르면 총이 없는 병사나 같다.”라는 지시가 하달됨에 따라 북한의 웬만한 간부들은 각종 권력들을 이용하거나 온갖 뇌물들을 모두 다 받치면서 저저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평양외국어학원 및 외국어대학에 보내려고 최선을 다 하였다.

특히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이를 비롯한 북한의 최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남산고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여기서 공부하던 당시 북한의 최고위 간부들 자녀들이 모두 평양외국어학원이나 평양외국어대학으로 전학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들로서는 당시 ‘김정일 서기실’ 실장이었던 이명재의 아들 이용호(현 외무상), 전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의 딸 오선화(현 외무성 1급 연구원), 전 김일성주석궁 책임비서였던 최영림의 양딸 최선희(현 외무성 1부상), 전 대남사업비서 허담의 아들 허철(현 외무성 초급당 비서)과 딸 허영희,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의 딸 김효정과 아들 김동호, 전 국가보위부장 이진수의 아들 이세영(사망), 전 당 통전비서 김용순의 아들 김 성(현 외무성 국장) 등 수많은 당, 정, 군의 부부장 급 이상 간부자식들이었다.

외교관 양성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 평양외국어학원 졸업생들의 대다수는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국제관계 대학 등 해외유학을 통한 외국어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여기서 대체로 해외유학파들과 평양외국어대학 졸업생들은 외무성, 인민무력성, 무역성, 대외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외교관들로,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및 국제관계 대학 졸업생들은 당 및 당 산하 대외부문(당 국제부, 통전부, 국가보위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 외교관들로 입명 및 파견된다.

평양외국어학원을 졸업하고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국제관계 대학에 진학한 다음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당국이 기획 및 조직하는 해외유학에 선발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는 향후 졸업생들이 외교관이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북한당국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필요한 년도에 해외유학을 조직하며 외교관 양성을 위한 유학생들을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국제관계 대학 등에서 추천 및 선발하게 된다. 해당 대학들의 간부 처(부서)들에서 필요한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위원회에 추천하며 교육위원회는 중앙당 간부 부를 통해 최종심사 및 결정하게 된다.

유학생 선발 및 최종심사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리는바, 이 기간에 어마어마한 뇌물 및 권력형 비리가 감행된다. 유학생들은 대체로 4년 동안

해외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파견 전 대학들에서 졸업시험을 치루고 정부의 중요한 해당기관들에 배치된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유학생들의 몸값은 수자나 말로서는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평양외국어 대학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 해보면, 평양외국어대학은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 3동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학은 1961년,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서 분리 확장된 외국어전문 교육대학이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학형성 과정을 보면 우선 김일성 종합대학을 모체로 건립한 후, 차후 질, 양적으로 강화되는데 따라 전문대학들을 순차적으로 설립하는 행태로 발전하였다. 이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전문대학들을 다시 김일성 종합대학 부속대학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던 학부들을 대학으로 격상시켰는바, 그 사례로서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법률대학, 문학대학, 컴퓨터 대학 등이다.

대학의 좌측에는 룡구 중학교가, 우측에는 인민무력성 보위 국 산하 부처가 있으며, 정면에는 지하철 삼흥 역과 김일성 종합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평양외국어대학은 크게 대학 반과 학원 반으로 분리되어 있다. 대학 반은 5년 과정으로 전문적인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원 반은 북한의 보통 교육과정인 6년을 대체하여 조기 외국어 인재를 양성 및 충당하고 있다. 평양외국어대학 학원 반은 현재 한국의 특목고와 유사한바, 북한의 교육시스템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문대학들이 부속학원들을 포진하고 있다. 그 사례로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대학 부속 평양예술학원, 평양체육대학 부속 평양체육학원 등이다.

평양외국어대학에는 학원 반을 거치지 않은 학생이 대학 반에 진학할 수 없다는 내부규칙이 묵시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학원 반은 3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부는 영어, 아랍어, 2학부는 러시아어와 중국어, 3학부는 프랑스어를 주축으로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등 민족어들을 교육하고 있다. 차후 대학 도서관 청사에 민족어 학부가 만들어져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등 특수 언어들을 교육하고 있다.

인재선발 과정을 보면 역사적으로 2개의 세대가 존재한다. 1세대는 항일투사, 전쟁고아들의 세대이다. 다시 말해서 학원 반 초창기에는 유자녀 학원의 형식으로 항일투사 자녀들이나 엄선된 전쟁고아들만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양성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인적 자원이 점차 부족해지자 과도적으로 일반 학생들을 선발 및 보충하였다. 이들이 학원의 2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노동당 국제부, 외무성, 대외무역 및 경제위원회 등 북한 대외부문의 원로집단들에 일명 혁명의 기본계급인 항일투사 자녀들이나 고아출신들이 집중된 점이 바로 이러한 사정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그들이나 자녀들이 혈연적 대를 이어가며 대외 업종의 주류를 독점하고 있다.

평양외국어대학(平壤外國語大學)은 5년제 외국어 대학으로 북한 최고의 엘리트 교육 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서로 마주 보이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 한편, 평양외국어학원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입학 조건이 까다롭다. 평양외국어대학의 입학 자격은 혁명유자녀, 영예군인 자녀 등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고등중학교 과정의 외국어 학원 출신들이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평양외국어대학의 역사는 194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11월 15일 내각지시 제231호에 의해 창립된 평양러시아어대학이 그 시초이다. 창립 당시 대학은 교원, 학자 18명을 비롯하여 59명의 교직원과 36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6.25 전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은 외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고 평양러시아어학원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던 1952년 12월 내각결정에 의해 평양러시아어대학은 중국어와 영어 등 다 어종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1960년에 이르러서는 동방어학부, 서방어학부, 국제관계학부, 무역경제학부 등 4개 학부로 구성되었고 7개 외국어를 교육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61년, 평양외국어학원으로 분리되어 단일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그 이후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발전을 거듭한 평양외국어대학교는 오늘날, 23개 어종에 러시아어, 중어, 영어 등의 3개 학부와 민족어학부를 포함하여 4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 상류층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외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다. 그 열풍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평양외국어학원과 평양외국어대학이다. 평양외국어학원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원으로 매년 정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릴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또한 평양외국어대학은 다국어소유자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매년 2~3개의 외국어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학생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 최근 들어 평양외국어대학에서는 모든 졸업생들이 최소 2개 이상의 외국어를 완벽히 습득하고 제3,4 외국어까지 습득하는 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두 학교, 평양외국어학원과 평양외국어대학은 북한 최고의 명실상부한 엘리트 외국어 교육기관이며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국어 교육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어나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입시 열풍이 대단한데, 북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특목고 열풍이 분다는 사실을 보면 한민족의 교육열이가 얼마나 뜨거운 수준인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끝//

* 다음호에서는 ‘북한의 외교관 선발 및 파견 실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